

선문대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방법 연구*

정 진 완

선문대학교

〈요 약〉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에는 그 대학을 설립한 종단의 진리와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 종립대학은 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성교육(또는 종교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 접근이 많고, 인성교육의 실제에 대한 현실적 연구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입장에서 종립대학의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를 교육현장의 실제적 문제 해결 중심으로 시도해 보자는 착안을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일교가 설립한 선문대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경험적 접근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실제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애천, 애인, 애국이라는 선문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먼저 인성교육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어 선문대학교의 교육목표인 ‘인격자’를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였다. 이것은 건학이념의 근본토대인 애천이념이 곧 양심을 따르는 삶으로 이해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나아가 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심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방법을 개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양심의 가치를 깨닫고 양심의 실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았다. 그 방법은 교재 읽어오기(양심체크)와 대화식 노트필기하기 및 실천수업(명상수업과 버려진 양심 줍기)과 실천과제(양심대로 행동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양심수업’이라 명명한다.

수업방식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는 의외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양심수업’이라는 인성교육방법의 교육적 효과와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인성교육방법에 대한 보다 전문적 연구의 필요성과 개인적 연구 차원을 뛰어넘어 관련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발견된다.

* 본 연구는 교내 학술연구지원비를 받아 진행된 것임.

핵심 주제어: 선문대학교, 건학이념, 인성교육, 양심, 양심수업

I. 서 론

미래학자들이 고도의 창의력과 기술은 물론 인간미 넘치는 감수성과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 통합된 인간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지식의 전파 속도가 빠를수록, 정보가 개방될수록 지식을 전수하는 대학교육은 미래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나이스비트(Naisbit)는 현대 사회를 고도기술, 고도감정, 고도신뢰란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산업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적인 접촉에 대한 욕구가 커지며, 인간에 대한 믿음 또한 고도로 커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대학은 이제 지식을 전수해주는 학습장이 아니라 대학생을 전인적 인간으로, 자신의 본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격자로 길러주는 참다운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대학설립의 목적으로 삼은 종립대학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체제와 대학의 비전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종립대학들은 건학이념 구현의 취지로서 소속 대학생들에게 대학교 설립 주체인 특정 종단의 진리에 입각한 교육이념(또는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인성교육(또는 종교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이수케 하고 있다. 종립대학의 하나로서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선문대학교도 《채플》과 《현대 문화와 통일사상》을 인성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 문헌들을 살펴볼 때, 인성교육은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또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성의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 그러나 인성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에 의해 인성이 무엇인지 학자들과 교육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실재 인성의 개념을 논의함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은 개념 규정이 어렵고 다양한 인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다양한 인성개념에 대해 동양과 서양, 학문과 종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을 제기하려는 노력³⁾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인성 개념 제시에 불과할 뿐 종합적인 인성의 개념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인성의 개념 규정과 마

1) 윤운성, 『21세기 청소년의 인성교육론』, 『대하 김관해교수 정년논문집』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1995), 559-586쪽.

2) 강선보 외 공저,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2008), 266쪽.

3) 위의 책, 266쪽.

찬가지로 인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함이 어려운 듯하다.⁴⁾ 이런 연유 때문인지 인성교육을 의미하는 용어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은 가치관교육, 도덕교육, 종교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자들과 교육자마다 인성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연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양혜연이 「대학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⁵⁾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개념적 차원에서 집중되어 있어 그 인성교육이 실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각 종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실재를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성교육의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다. 이것은 전문대학교의 건학이념(애천, 애인, 애국)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성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다. 연구범위는 필자가 맡아 강의하는 인성교과목,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수업의 7개 반에 국한하였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가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학문적 탐구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갖는 원초적 한계이다. 이런 한계로 인해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여러 부분의 이론적 전문성이 미흡함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연구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문이라 생각하는 필자 스스로에게 직업으로서의 학문적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전문대학교 인성교육의 현실적 이해

1. 전문대학교 인성교육의 개괄적 상황

건학이념은 교육목표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전문대학교의 교육목표는 첫째, 애천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인격의 본체인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한 성품을 지닌 하나의 인격자를 양성하는 것, 둘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애인정신을 함양하여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 마지막 셋째는 전문적인 지식에 토대를 둔 창의력으로 인류 복지세계에 기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4) 한국교육학회,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1998), 15-18쪽.

5) 양혜연, 「대학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5 (서울: 한국여성교양학회, 2006), 1-28쪽.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성교육은 직속기관인 교목실에서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 설립 초기에는 통일교회의 교리서로 일컫는 『원리강론』을 교재로 《성서와 원리》 교과목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했으나, 2003년부터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서와 원리》 교과목의 교재개발 필요성에 의해 2003년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재가 개발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은 교양필수과목으로 1년에 4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규 교과 과정 이외에 교과 과정 밖에서 교목실 주최로 한 학기 1박 2일로 진행되는 ‘건학이념캠프’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교육프로그램도 강의보다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한 학기에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그 교육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모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작년 2009학년도부터 여름방학에 ‘조국국토순례’라는 프로그램으로 4박 5일 일정으로 건학이념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임교수 8명과 시간강사 6명의 교수들이 총 70개 반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한 반의 수강생은 40명에서 43명에 이른다. 전임교수 한 명은 총 15시수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14시수와 《채플》 1시수)의 강의를 맡아 진행한다. 전임교수 한 명당 약 280명 이상의 학생들을 담당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선문대학교의 인성교육이 직면한 문제

1) 인성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부정적 인식

교육적 효과는 교육대상의 학습열의나 마음자세에 맞게 교육내용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 교육의 효율성이 교육 대상인 학생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에 있어서 그 대상인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성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학생들의 행동습관, 관심거리, 마음 됨됨이,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자체적으로 학생에 대한 분석을 설문조사와 학생상담을 통해서 실시하였다.⁶⁾ 그 결과 파악된 학생들의 마음자세와 의식 수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대다수(80~90%)의 학생들이 인성교과목인 “현대문화와 통일사

6) 이 설문조사는 별도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업 때 실시한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수업(양심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의 일부이다. 즉 “강의를 듣기 전 본 과목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문항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다. 논문 뒷부분에서 설문지의 문항이 소개되어 있다. 또 학생상담은 한 학기에 수업 듣는 학생 중 30~40명 정도의 학생과 자발적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한 내용이다.

상”에 대한 부정적 또는 배타적 마음자세를 갖고 수강한다. 둘째, 종교에 대한 일반적 편견 그리고 본교의 재단인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다. 셋째,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갖고 있다. 넷째, 많은 학생들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본 과목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종합해 보면, 인성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과 바르지 못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세는 비록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여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학교(종립대학)에서 교양필수로 개설한 인성교과목(또는 종교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또 현대 젊은이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임을 감안해 볼 때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서 전문대학교의 설립 종단인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전신)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이 본 과목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일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2) 교육목표의 모호성

인성교육은 건학이념이 구체화된 교육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과목이다. 전문대학 인성교육의 교육목표는 “인격자”이다. 그러나 교육할 때, “인격자”의 기준을 과연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라는 큰 의문이 든다. 전문대학교의 건학이념이 논하는 “인격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기반으로 하여 지정의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전인적 품격을 지닌 완전한 인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문대학교의 건학이념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교육목표는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하여 인성교육을 이론적인 강의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 결과 인성교육의 효과가 상실되어 결국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

‘교육’의 사전적 의미를⁷⁾ 음미해 볼 때, 인성교육이 인간의 본성을 발현시키며 계발시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인성교육은 학생 스스로가 깨닫고 느끼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7) ‘교육’이라는 단어, 영어의 ‘education’, 독일어의 ‘Erziehung’, 프랑스어의 ‘éducation’은 다 같이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educatio’라는 라틴어의 의미는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읽혀진다. 즉 인성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학생들 내면에 있는 참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고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적 전통에서의 인성교육은 인간됨의 바탕을 이루는 품성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실천케 하는 데에 그 교육적 목표를 삼고 있는 이유가⁸⁾ 여기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1주일에 2시간, 한 교수 당 4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은 강의 통해서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지적 차원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성교육의 진행이 이론적 교육 중심인 강의위주로 되고 있어 그 교육적 효과 창출의 한계가 매우 크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성교과목으로 독립되어 진행되는 관계로 전반적 교과과정의 교육철학과 원칙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특정한 교과목으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도 보인다.

Ⅲ.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방법 모색

1. 문제 해법의 실마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목적이나 교육목표의 명확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 과제들의 실마리를 찾아보게 된 결과, 필자는 인성교과목인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의 교육목표인 “인격자”의 기준을 어떻게 가시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인성교육의 목표인 “인격자”는 건학이념의 구체적 표상인 관계로 그 기준은 건학이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 읽혀졌다.

선문대학교의 애천(愛天), 애인(愛人), 애국(愛國) 건학이념의 근본 토대인 애천의 의미가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⁹⁾ 이에 건학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기준을 양심에 둘 것을 필자는 착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양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을 인격자로 규정한다면, 선문대학교의 교육목표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양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기준도 모호성이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양심’이라는 통념이 있어 ‘인격자’라는 기준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의 필요성이 읽혀졌다. 왜냐 하면,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교수주도형의 강의보다는 학습

8) 강선보 외, 앞의 책, 22쪽.

9) 선문대학교,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6), 17쪽.

목표를 학생 스스로가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하며 실천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학생 자기주도형 강의에 있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인식은 교육목표(양심대로 행동하는 사람)를 단계적 목표(1단계 지금보다 변화발전하기, 2단계 규범 지키기, 3단계 양심대로 행동하기)로 세분화시켜 그 기준을 좀 더 가시화시켰다.

이 단계적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의 목표(지금보다 변화발전하기)는 학생들의 현실적 상태에서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하게 하여 자신의 단점을(5가지 이상의 잘못된 행동) 현실적으로 개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2단계의 목표(규범 지키기)는 1단계의 목표를 통해서 얻어진 자신감을 토대로 학생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과 원칙 등을 5가지 이상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 목표(양심대로 행동하기)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분화된 인성교육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작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효과와 양심대로 행동할 때의 결과를 직접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양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픈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되었다. 또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과 배타적 마음자세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2. ‘양심’을 중심한 인성교육방법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생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자는 여러 가지의 실천프로그램(교내 쓰레기 줍기 등)을 활용해 보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종교의 이론적 내용보다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생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해 보았다. 강의도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자신의 생각과 의견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노트 필기를 하게 하였고, 그 때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게 하였다. 약 9년 동안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하면서 실험해 본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게 나타났다.

이에 필자는 나름 진행시켜 왔던 그 교육방법들을 조금씩 정리하여 ‘양심’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방법(필자는 이것을 ‘양심수업’이라 명명함. 이하 양심수업이라 함)을 착안해 보았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분명한 배움의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양심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그 양심에 입각한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케 하며, 스스로 그 삶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심적 삶의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양심적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직접 느끼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둔 방법이다.

10) 이의영, 『잘 가르치는 교수』(서울: 쌤앤파커스, 2010), 96쪽.

교육현장에서 실험적으로 활용한 ‘양심’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방법을 토대로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변화 구성시킨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 강의계획서:

- 1) 강의목표: 양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인격자) - 단계적 목표: 1단계 지금보다 변화발전하기. 2단계 규범 지키기. 3단계 양심대로 행동하기.
- 2) 강의내용¹²⁾: 1학기) 1주: 대학과 건학이념, 2주: 나의 탄생 기원(내가 태어난 동기와 목적), 3주: 시청각교육(신과 관련된 동영상 등), 4주: 하나님(인간의 부모), 5주: 나의 모습 I(마음과 몸), 6주: 나의 모습 II(남성과 여성), 7주: 나의 모습 III(육신과 영인체), 8주: 중간고사, 9주: 시청각교육(임사체험 등), 10주: 내 삶의 목적(인생의 노정), 11주: 실천수업(명상수업), 12주: 현대인간의 모순성과 고통, 13주: 참된 인성 회복의 길, 14주: 총정리 및 설문조사, 15주: 기말고사.
2학기)¹³⁾ 1주: 강의개요, 2주: 가치관 1, 3주: 가치관 2, 4주: 실천수업(버려진 양심 줍기), 5주: 가정의 모습, 6주: 가정의 가치와 참가정, 7주: 역사의 의미(자신의 과거), 8주: 중간고사, 9주: 역사의 방향, 10주: 나와 조국, 11주: 조국의 미래, 12주: 시청각교육(평화와 관련된 동영상), 13주: 나와 평화, 14주: 세계평화, 15주: 기말고사.
- 3) 강의진행방식: 교재 읽어오기(양심체크), 대화식 노트필기, 실천수업(명상법과 버려진 양심 줍기 등), 실천과제(5가지 부모님 사랑하기, 5가지 착한 일하기 등).
- 4) 강의평가방식: 수업참여도(20점=양심체크 5점, 노트필기 10점, 실천과제 5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각각 30점씩), 출석(20점).

3. 양심수업(양심을 중심한 인성교육방법)의 진행방식과 그 세부 내용

양심수업은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수업을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양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에 대한 진행방식과 그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1) 본 내용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방법 연구를 위한 필자 개인의 강의계획서임.

12)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의 제목들을 ‘나와 양심’을 중심으로 각색하여 교재의 핵심적 내용들을 편집한 것임.

13) 2학기의 강의 내용은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양심적으로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수업 소개하기

이것은 첫 수업 때,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인성교과목인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의 개설목적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이 자신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시키면서 공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대학생들로 하여금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은 인성교육과목으로서 자신을 배우는 과목이며 자신의 본성이 무엇이고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위한 제반 내용들을 배우는 과목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가 학생 자신의 변화와 발전임을 분명히 인식시켜 학습동기 부여를 시키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야함을 언급하면서 수업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여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양심수업 진행 방식 제반에 대한 설명을 한다.

2) 대화식 노트필기

이것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서 학생들이 실제 겪는 근본적인 인생의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그것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하며 그 내용들을 자신의 노트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그 인생의 문제가 갖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깨닫도록 유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들어 보면, 인간인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주제를 통해 자신이 태어난 동기가 무엇이고, 자신을 존재케 한 원인적 존재이신 부모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면서 부모와 자녀인 자신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서 자신의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회상해 보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게 하여 직접 느끼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또 교수의 강의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의문점 등을 필기하도록 한다. 이것은 노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쪽 부분에는 교수의 강의내용을, 다른 쪽 부분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및 의문점 등을 쓰게 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수와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필기한 것을 한 학기 1회 검사하여 매 강의 시간의 교수 강의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얼마큼 기록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4등급(1등급 10점, 2등급 8점, 3등급 6점, 4등급 3점)으로 평가하여 수업참여도 점수에 반영시킨다. 물론 이 방식이 타율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타율적 교육방식에 습관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자율적 학습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수단적 차원의 타율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방식으로도 활용하게 되었다.

3) 실천 수업

이것은 매 학기 1회, 한 주(2시간) 수업을 통해서 실시하는 특정 실천프로그램으로서 ‘양심수업’이라는 명칭을 창안하게 된 실질적 교육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명상수업’과 ‘버려진 양심 줍기’이라는 실천프로그램이다.

1학기 실천 수업은 “명상수업”이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직접 명상을 시키면서 마음을 살피게 하고 학생들 스스로 직접 마음(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체험의 기회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자세를 똑바로 앉게 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게 한다.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방법은 자신의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게 한다. 날숨과 들숨을 같게 하도록 하며, 그 숨을 가능하면 가늘게 내쉬게 하여 정신을 호흡에 모이게 한다. 그 다음 조용히 자신의 어제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정리(반성)하게 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느껴보게 한다. 그 다음 조용히 눈을 뜨게 한다. 이 방법을 통해 마음의 존재성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마음을 중심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2학기 실천수업은 “버려진 양심 줍기”수업은 학생들을 2인 1조로 하여 1시간 동안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도록 하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양심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이다. 그리고 1시간 동안의 양심수업 이후 다시 학생 전체가 교실에 모여서 양심수업한 내용을 세 가지의 질문(1. 몇 분 수업을 하였는가? 2. 수업 중 가장 힘들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3. 수업한 후 드는 느낌은 무엇인가?)을 중심으로 토의하면서 자신들이 양심수업 한 내용을 되새기면서 자신 스스로의 양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도록 하면서 강의를 정리한다.

4) 실천 과제

이것은 실질적인 양심대로 행동하기(예를 들면, ‘5가지 부모님 사랑하기 또는 착한 일 10가지 하기’ / ‘구체적으로 단점 5가지 개선하기’ 등)를 일정한 기간(약 한 달) 동안 과제로서 내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며 그 결과 내용을 리포트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5등급(5가지 5점, 4가지 4점, 3가지 3점, 2가지 2점, 1가지 1점)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강의시간을 통해서 배운 내용(양심적 삶과 사랑하기 등)을 자신의 삶 현장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양심적 행동의 효과를 직접 체휼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이 과제는 학생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상담을 통해서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사랑하기’라는 실천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집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다 발전된 관계로 개선케 해 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제의 평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문제의 하나(그 과제를 실천한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문)로 출제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그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양심적 성찰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4. 인성교육의 평가방식과 그 내용

일반적으로 교육평가는 일정한 교육활동 이후 학생들의 성취도를 판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평가란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에 관한 평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교육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평가활동을 통해 우리는 실행한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의식과 행동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평가는 교육적 선택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미래의 행동에 대한 지침이 되므로 교육에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¹⁴⁾

사실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식적 측면에 있어서의 능력평가는 시험 등을 통해 목표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인성이나 태도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도덕적 품성과 올바른 가치관 함양이 교육목적인 인성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인성교육의 평가방식이 기존 학문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함에 주목하여 새로운 인성교육 평가방식 세 가지를 고안하여 활용해 보았다.

첫 번째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재를 읽어오게 하고(예습하기), 수업시간에 발표하게 하여 그 결과를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 체크(수업 후 교수에게 와서 말함)하게 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이것을 ‘양심체크’라고 부른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적 학습태도를 양성하기 위함과 동시에 양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점검하면서 양심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배양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양심체크는 철저히 양심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재를 읽고 그 결과를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 체크(수업 후 교수에게 와서 말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한 한기에 최소 5번(5주) 교재의 일정량을 미리 읽어오게 하여 수업 마치고 난 후, 교수에게 와서 자신이 교재 읽어온 것을 말하면 그것을 체크하여 1회 1점, 총 5점을 주는 평가방식이다. 5회 이상 읽어올 경우에는 +@점수를 주

14) 장선철 외 공저, 『교육학개론』 (서울: 태영출판사, 2008), 279-281쪽.

어 학생의 자율적 학습을 더욱 유도한다. 교수는 읽어왔다고 말하는 학생의 양심을 믿고 그대로 점수를 주는 것이 본 평가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여 읽지도 않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5점을 받아가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이 방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데 있다. 또 양심이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배양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오히려 학생들의 비양심적 행동을 양성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한 학기 강의내용의 주 골자가 양심의 가치와 양심적 삶의 결과에 대한 것이어서 비양심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결코 떳떳하지 못한 것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양심적 행동을 양성시키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체크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는 노트필기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인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발표 등)과 수업 듣는 태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학생들의 적극성을 유도하여 성격 변화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법이며 수업은 학생과 교수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느끼게 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는 +/-@ 점수가 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기본 점수 이외에 +점수를 주고, 반대로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로 하는 학생에게는 -점수를 줌으로써 수업참여도를 높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의 유형 변화이다. 이것은 시험 문제를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문제를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 및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200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는 “자신의 향후 1년 학습계획표를 인격적인 면과 지적인 면 두 측면에서 세우기”였고, 동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는 “대인관계 개선하기(부모와의 관계 개선하기/친구관계 개선하기/배움의 생활개선하기”였다. 이 때 평가기준은 얼마큼 과제를 성실하게 해 왔는가를 기준으로 크게 4등급(1등급 30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천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기말고사는 한 학기동안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돌이켜 보며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2004년도 2학기 기말고사 문제는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과목은 무엇을 가르치는 과목이고, 본인이 배운 내용은 무엇이고,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였다. 인성교과목이 무엇을 가르치는 과목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며, 변화와 발전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실질적인가를 기준으로 네 개의 등급(30점 4~5개 변화발전, 27점 2~3개, 25점 1개, 없을 경우 그 이유를 쓰게 하여 20점)으로 평가

한다.

필자가 위와 같이 평가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둔 이유는 교육평가는 교육을 드러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자신의 배움 생활을 돌이켜 보게 하는 평가방식)을 통해서도 인성교육이 단순히 지식과 이론적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양심을 중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평가하는 교육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매 학기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양심체크와 수업태도)는 매 수업 정상시에 이루어지며, 한 학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실천프로그램 과제 검사와 노트 검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양심수업’과 같은 실천 교육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지향함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제는 무엇보다도 수강 학생 인원 수 감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5. 양심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자는 매년 매 학기별로 필자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설문지¹⁵⁾

1. 강의를 듣기 전 본 과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2. 강의를 들은 후 본 과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3. 본 수업에 대한 본인의 참여도는? (객관식) 그리고 그 이유는? (주관식)
4. 본 수업이 자신의 인격과 인성계발 (행동의 긍정적 변화발전) 측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5. 인성교육 과목으로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점은? (주관식)
6. 강의 중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강의와 그 이유는? (주관식)
7.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 강의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9. 강의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10.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시오. (주관식)

15) 보다 진술한 답변을 위해서 성명 기재는 학생 자유에 맡겼다. 본 연구 작업은 매 년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온 결과인 관계로 설문 문항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 왔다. 즉 질문 형태의 변화나 한 두 개문항의 첨삭 등이 있었다.

2003학년도 1학기에서 시작한 설문조사는 현재 2011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 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¹⁶⁾ 다 만, 2003~2005학년도 3년 분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해 놓은 결과를 통해서 양심수업 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그 중 2005학 년도의 설문조사결과 내용 중 일부 내용을 통해서 양심수업의 교육적 효과의 가능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2005년도 1학기 강의방식 만족도

강의방식만족도 수업참여도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50점이상	50미만	소계
90%이상인 학생	4		2				6
80%이상인 학생	8	7	5	1	1	1	23
70%이상인 학생	6	12	10	8	1	2	39
60%이상인 학생	5	8	23	16	6	1	59
50%이상인 학생	2	3	6	7	13	7	38
50미만인 학생	1	4	9	11	12	8	45
합계-210명	26 (12%)	34 (16%)	55 (26%)	43 (20%)	33 (16%)	19 (9%)	210

〈표 1-2〉 2005학년도 2학기 강의방식 만족도

강의방식만족도 수업참여도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50점이상	50미만	소계
90% 이상인 학생	19	3	4				26
80% 이상인 학생	10	30	5	2	1		48
70% 이상인 학생	5	27	13	10	1		56
60% 이상인 학생	3	5	5	5	1	1	20
50% 이상인 학생	1	2		2			5
50% 미만인 학생	2	5	1	2		1	11
합계-166명	40-24%	72-43%	28-17%	21-13%	3-2%	2-1%	166

필자는 양심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업참여 도를 파악한 후, 그 수업참여도별로 나타난 각 설문 문항의 만족도를 분석해 보았다. 이 방식은 기타 설문항목에도 똑 같이 적용하였다. 수업참여도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현 대문화와 통일사상》 교과목(양심수업)을 얼마큼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양심적 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역시 학생들로 하여금 양심대로 행동하게 하는 교육적 의도가 숨

16)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 있다.

어 있다.

위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학년도 1학기에는 수업참여도와 상관없이 강의방식에 만족도가 70점 이상인 학생이 총 115명으로서 전체 210명 중 54%를 차지하였고, 2005학년도 2학기에는 강의방식의 만족도가 7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 166명 중 140명으로서 84%나 차지하고 있다. 수업참여도가 매우 낮은(수업참여도 50% 미만) 학생 11명 중 약 65%에 해당하는 7명의 학생도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80점 이상의 만족도를 느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양심수업의 강의방식이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읽혀진다. 물론 강의방식 만족도가 70% 미만인 학생도 총 26명(전체 학생 중 16%)이나 있다는 점도 읽혀지면서 양심수업에 대한 지속적 연구 작업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높은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2-1〉 2005학년도 1학기 수업 참여도와 그 이유

수업참여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소계
학생수		6	23	39	59	38	45	210
이유	강의방식 ○	4	10	20	15			49
	강의방식 *					1	3	4
	강의내용 ○	2	12	18	12			44
	강의내용 *						2	2
	과목관심 *			1	19	18	17	55
	공부관심 *				1	7	13	21
	기타		1		12	12	10	35

〈표 2-2〉 2005학년도 2학기 수업 참여도와 그 이유

수업참여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소계
학생수		26명	48	56	20	5	11	166
이유	강의방식 좋음	15	32	20	3			70
	강의방식 나쁨			4	1			5
	강의내용 좋음	5	13	13	3		1	35
	강의내용 나쁨							
	과목관심 무			13	7	2	3	25
	공부관심 무			3	3		3	9
	기타	6	3	3	3	3	4	22

여기서도 강의방식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파악된다. 편견과 닫힌 마음을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도 효과적인 강의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교육적 효과는 좋아질 수 있음을 발견할 때 인성교육의 교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의 중요성이 읽혀진다.

IV. 결 론

선문대학교의 건학이념구현을 위한 인성교육방법 연구는 필자의 선문대학교 인성교육의 현장에서 겪는 교육적 문제(인성교육목표인 인격자 기준의 모호성과 인성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강의중심의 인성교육)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학이념의 근대 토대인 애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근간이 양심인 점에 주목하여 이상적(理想的) 교육목표인 ‘인격자’의 추상적 기준을 ‘양심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규정하여 인성교육목표의 모호성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다시 3단계(1단계 - 현재보다 변화발전하기, 2단계 - 규칙준수하기, 3단계 - 양심대로 행동하기)로 세분화 시켜 교육목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가급적 교수나 학생들이 모두 인성교과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성교과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게 해 주었다.

이렇게 보다 구체화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양심의 가치와 양심의 실천능력 향상을 배양시키기 위한 수업방식으로서 ‘양심’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론교육과 함께 실천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진행되는 인성교육방법(양심수업)을 착안하였다. 먼저 노트 필기를 통해서 강의 내용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의견 및 느낌 등을 필기하게 함으로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 학기 한 번 실천 프로그램(쓰레기 줍기와 명상수업 등)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직접 양심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양심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현실문제 해결하거나 양심적 행동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 과제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 결과를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방식의 변화(양심체크와 실천과제 및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 유형의 변화)이다. 시험 문제 유형을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문제를 과제물과 함께 연관시켜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 및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으로 진행된 인성교과목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의외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위한 필자 전문성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약 9년 동안 인성교육을 실시한 필자의 축적된 경험을 분석하여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원초적 한계는 뛰어 넘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인 인성교육방법(양심수업)은 추후 전문적 연구와 검토가 한 층 더 심도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이 갖고 있는 원초적 한계이다.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약 200에서 250 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인성교육은 그 자체적으로 이미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의 교육적 효과 창출의 한계, 인성교육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등이다. 이 한계는 최우선적으로 수강 학생 인원 수 감축을 통해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필자 나름대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착안한 인성교육방법(양심수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먼저 인성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와 발전의 객관적 기준 설정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은 인성교육방법(양심수업)의 단점 파악과 개선 방안의 과제가 있다. 인성교육은 특정 교과를 통해서만 전개되는 것보다 모든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합교과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궁극적인 인성교육의 방향성이라는 지적¹⁷⁾이 있듯이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선문대학교의 교육체계를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는냐의 과제는 선문대학교의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의 궁극적인 교육과제로 인식된다.

“교수법은 ‘길없는 길’을 몸으로 체달한 사람이 배움의 단계에 몰입하는 사람에게 그 여정을 걸어가는 노하우를 온 몸으로 보여주는 과정이다. 그 여정에서 체험한 환희의 고통과 고통의 환희의 흔적을 무조건적으로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한 몸부림이 다름 아닌 교수법이다.”¹⁸⁾라는 교훈은 인성교육의 방법적(기술적) 측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인성교육의 주체자인 필자 스스로가 먼저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17) 강선보 외, 앞의 책, 14쪽.

18) 유영만, 『당신의 강의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82쪽.

참고문헌

- 강선보 외 6명.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2008.
- 구제홍. 「정보사회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 명지대학교 인성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18.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7.
- 류지성. 『대학혁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박병준. 「예수회교육의 특성과 종교 교육의 실천방안」. 『종교연구』. 52.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8.
- 선문대학교 교목실.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4.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1997.
- 양혜연. 「대학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5. 서울: 한국여성교양학회. 2006.
- 유영만. 『당신의 강의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 윤운성. 「21세기 청소년의 인성교육론」. 『대하 김관해 교수 정년논문집』.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1995.
- 이의용. 『잘 가르치는 교수 (최고의 강의를 위한 교수법의 모든 것)』. 서울: 쌤앤파커스. 2010.
-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5.
- 장선철 외 공저. 『교육학개론』. 서울: 태영출판사. 2008.
-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8.
- 조 벽. 『조벽교수의 명강의 노하우&노와이』. 서울: 해범출판사. 2001.
- 최준규 · 김경이 · 원순식. 「가톨릭고등교육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가톨릭대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한국교육학회.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1998.
- 한명희 외 공저.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 엮음.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2007.

원고접수 : 2012년 1월 13일 1차 심사: 1월 25일 게재승인일: 2월 13일

연구자소개 : 정진완

① 전공 : 신학(통일원리와 사상) / 소속: 선문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② 관심영역 : 통일교의학, 종교교육, 종교사, 종교철학

③ 주요논저 : 「영인체에 대한 과학적 접근 가능성」, 「통일원리로 풀어본 영성개발」, 「한반도 해방 직후의 섭리 해석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 「말씀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원리강론 사위기대 정의에 나타난 ‘정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의 합성체가 각각 삼대상목적을 완성한다’는 함의」, 「원리강론의 육신과 영인체의 상대적 관계가 갖는 독특성」, 「원리강론의 자유의 의미에 대한 재론」, 「원리강론의 육신과 영인체의 상대적 관계가 갖는 독특성」

④ E-mail : chjinwan@sunmoon.ac.kr

Abstract

A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to Embody the Founding Ideals of Sun Moon University

Jung, Jinwan

Sun Moon University

The Founding Ideal of the University founded by a religion in Korea explain the ideal (truth) of the religion very well. Religious education of the university is to practice the founding ideal.

A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university is not only a important working of education, but also a significant work to seek the religion's role in the part of the solution to contemporary problem which is to lose human nature.

I think that it needs to study of practical instruction, because to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is generally theoretical studying.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my eight years teaching, I found a concrete method of religious education that embodies founding ideals of Sun Moon University. The course is titled, "Conscience Class" and the method used is centered on the conscience.

The key point of this method is teaching how to use one's conscience in order to develop good character with conscience ability.

The contents of "Conscience Class" is consisted of conscience-awaking, conscience-listening, checking, talking, acting and testing.

Through this method I found great effect and possibilities in students with their character development. They demonstrate confidence to execute the power of their own conscience. This religious education embodies the founding ideals of the Sun Moon University.

Key words : Founding Ideal, Religious Education, Conscience, Conscience Class